

## Florins Residence

Baumhauer

This classic Engadine farmhouse in the Swiss hamlet of Florins was renovated and converted by Philipp Baumhauer Architekten with respect for the existing. It consisted of a residential section facing the village center and an agricultural section away from the road.

The building was completely refurbished and additional living space was added. By first removing the floor of the back barn section of the house, a three-level, structurally independent wood structure, was then inserted within the existing stone frame, distinguishing itself on the exterior facade as a large wooden volume. The design allows the historical large volume of the barn to remain legible despite the changes. The two-story living room extends up to the roof of the inserted structure, whose inner surfaces are clad with larch wood. Four additional rooms that were also built within the old barn constitute a two-level sculptural transition to the former living quarters.





Views are open through the entire house along its longitudinal axis, and a large sliding glass door to the balcony extends the view to the mountains of the Engadine. The typical local motif of deep window reveals in thick exterior walls has been adopted and exaggerated, signifying the alterations inside, With their sharp-edged detailing, these few large window openings stand out in contrast to the existing architecture. Referencing historical barns in the vicinity, rough-sawn, untreated larch boards were chosen for the facade. The ongoing aging process of the wood helps the project to fit within the built fabric of its surroundings.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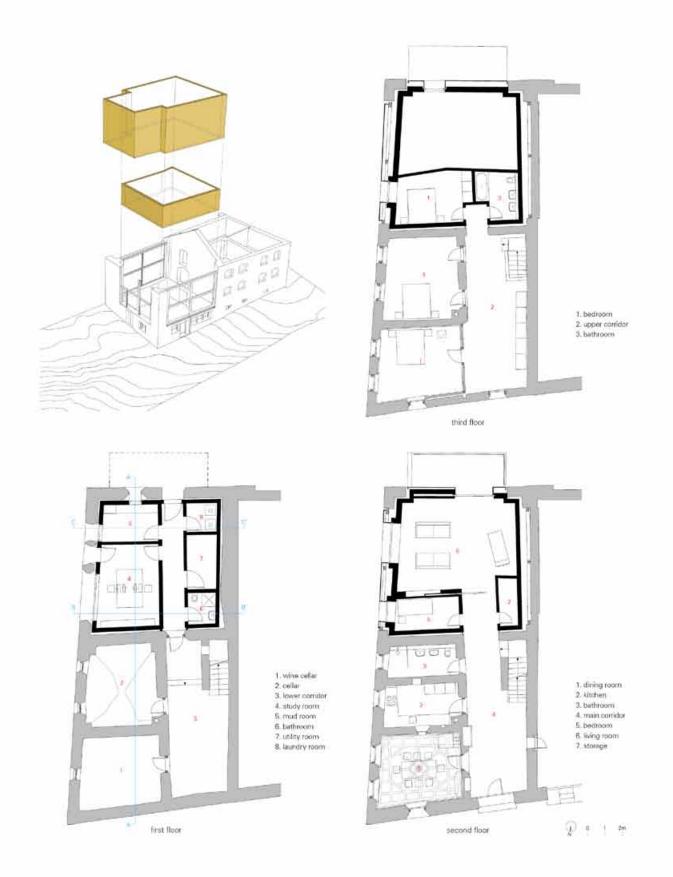
Project: Florins Residence
Location: Tarasp, Scuol, Switzerland
Architects: Baumhauer
Design team: Philipp Baumhauer, Julian Sauer, Tomohiro Yanagisawa, Kevin Driscoll
Bldg, area: 524m²
Completion: 2015
Photograph: ©Raiph Fei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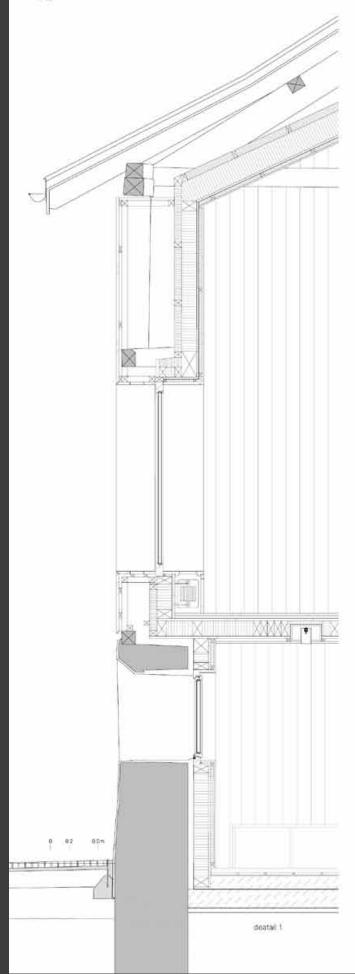
south elevation











## 플로린 주택

스위스 동남부의 한적한 산골 마을 플로린에 지역의 전통 양식을 보 존하면서 현대 생활에 맞는 기주 환경을 갖춘 주택이 들어섰다. 주백의 북쪽은 마을 중심을 향하며, 남쪽은 농지를 향한다. 마을 중심 에서 바라본 주택은 흰색 벽에 작은 창문들로, 주변 집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전형적인 지역 양식을 따른다. 남쪽으로 방향을 옮기면 얘기 는 달라진다. 흰색 벽은 목재로 마감되고, 창문의 크기도 커진다. 전봉 에서 현대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이는 3층으로 이루어진 기존 건물 뒤 쪽의 곳간 층을 제기하고, 그곳에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나무 공간을 삽입한 결과이다. 이로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주택으로 거듭났다. 나무구조였던 햇간이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새로 추가된 공간 역 시, 나무로 이루어졌다. 평면 형태도 기존 겨주공간과 같다. 기존 거주 공간이 곳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말이다. 중앙에 기다란 복도 축이 새로운 나무 공간까지 이어진다. 복도 끝에 창문을 내 외부까지도 공 간이 연장된다. 복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공간들이 나뉜다. 북쪽의 기존 건물 3층에 개인 공간이, 나머지는 공용공간이 차지한다. 가장 큰 변화는 단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층인 다른 방들과 달리 새로운 공간의 거실은 2층 높이로 계획됐다. 높아진 천장만큼 장의 크 기도 커졌다. 풍부한 채광과 전망을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거실에서 바로 이어지는 테라스도 설치했다. 창의 크기를 제외한 정사각형 형태와 깊은 폭은 전통 양식을 그대로 따라갔다.



